(이것은 성경공부의 시작을 돕는 보충용 자료입니다. 만약 10 주에 걸친 성경공부를 계획 중에 계시다면, 첫번째 주(Week1)에 해당하는 자료로부터 시작하실 수도 있습니다.)

시작하는 주(Introductory Week):

여는 기도 (Opening Prayer):

좋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아버지,
이렇게 당신의 지체들과 함께 당신의 말씀을 공부하고, 관계 안에서 자라나갈 수 있는 귀한 기회와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는 가운데, 저희 안에 있는 걱정과 염려를 당신께 맡겨드립니다. 평안함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성경공부의 시간이 열린마음 가운데, 서로를 통해 배우고 자라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 저희 안에 있는 어려운 질문들과 담대히 대면하고, 저희 자신을 도전하는 시간들이 될 수있도록, 올 한해 동안 저희를 인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저희가 함께 이사야서를 공부해 나갈때, 그 속에 등장하는 당신의 이야기와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 더욱 많은 것들을 배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인해 당신과 저희 주변에 있는 이들을 더욱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이스브레이크:

그룹의 리더로부터 시작해서, 돌아가면서 자신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으세요. 이 시간을 서로를 조금 더 알아가고, 공동체를 형성해가는 밑거름과 같은 시간으로 사용하세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서로 나누는 것은 도움이 될 것 입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당신의 전공, 직업, 혹은 소명은 무엇인가요?
어디서 왔나요 ?
어떤 연유로 이 성경공부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나요?
이 성경공부를 통해 얻고자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성경공부의 시간이 어떻게 당신이 빚어지고 다듬어지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이곳에 이렇게 모여, Calvin 공동체로서 (혹은 나아가 더 큰 공동체의 일원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공부할 수 있다는 사실은 정말 흥분되고 설레이는 일입니다. 이 성경공부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알아가는 시간을 갖을 것 입니다. 특별히, 이 기회를 통해 우리는 이사야서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장소는 커피를 나누는 자리가 될 수도 있고, 수업이 이뤄지는 교실이나 예배의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외에 수많은 다른 장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모임의 장소가 어디가 되든지 간에, 그 모든 시간들은 서로에게 격려와 도전을 던져주고 말씀안에서 모두가 하나의 공통체로 빚어져 가는 귀한 경험의 시간들이 될 것 입니다.

우리가 공부하게 될 이사야서는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정말 많은 사랑받고 있지만, 그 자세한 내용에 관련해선 많은 이들에게 낯선 책이기도 합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나 부활절이 다가올때 마다 자주 읽혀지고 불려지는 말씀들이기도 하지요. 사람들은 이사야서에 담겨져 있는 말씀들과 경구들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들을 통해 기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16-21 에서 자신의 사역을 설명하실때 인용한 이사야서의 본문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비록 66 장에 걸쳐 펼쳐진 이 방대한 선지자적 문헌(prophetic literature)을 한 학기라는 짧은 시간이 다 이해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이 시간을 통해 우리 모두가 이사야서의 중심메세지를 조금 이나마 더 깊이 이해하고 그 말씀의 감동에 참여케 되는 일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경공부가이드를 통해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10 개의 엄선된 본문들을 통해 이사야서가 담고자한 핵심내용들과 전체적인 관점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 가운데, 우리 모두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고, 그 안에서 좋은 질문들을 던져나가는 시간들이 되기를 걱려합니다. 말씀의 경이로움을 서로 공유하고, 어려운 질문들이 당신의 공동체와 서로 나누는 시간들을 갖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선 그 말씀이 담겨져 있는 정황(context)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 중 하나 일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흔히 알려진 대로, 선지서의 한 권입니다. 선지서는 대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 순종(혹은 불순종)의 결과로 주어지는 축복(또는 저주)를 선포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속에 하나의 구체적인 장르, 혹은 글쓰기 방식입니다. 성경속의 선지서들은 기원전 760BC 에서 460BC 사이에 쓰여졌습니다. 이 시기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 이전시대에는 전례가 없었던 종교적 불순종 만연하였고, 사회적 격동이 일던 시기였습니다. 선지자됨의 독특한 특징은 이런 시대적 상황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거의 모든 선지자들은 그 부르심에 수반되는 어려움이 얼마나 고된지 알았기에 하나님로부터 받는 소명을 꺼려했습니다. 그렇기에, 그 당시에 만약 누군가가 자기 자신을 선지자라고 칭하고자 했다면, 그들의 그런 행위자체가 그들이 거짓선지자됨에

대한 의심을 불러 일으키는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대변인의 역할을 수행하였기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라'와 같은 구절들이 그들의 입에서 자주 선포되어지곤 했습니다.

돌아오는 다음 10 주동안, 우리는 이사야서를 공부할 것 입니다! 이사야서를 관통하는 전체적인 주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그의 백성들이 그들 가운데 계신 그분의 임재 앞에 올바로 반응하도록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The Holy One of Israel")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가르키는 직함(title)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이는 이사야서에서는 26 번 등장하는 반면, 그 외의 성경전체를 통틀어서는 오직 6 번밖에 등장하지 않은 독특한 표현입니다. 이 중요한 표현의 반복되는 장소들을 중심으로 그 문맥을 계속해서 살펴보다 보면, 이사야가 가지고 있었던 주된 관심(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가운데 계신 거룩하시고 경외로우신 하나님을 향해 순종의 마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제안 (Suggestion):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시간을 통해 오늘의 성경공부 시간을 마무리 짓으십시오. 서로 안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는 시간을 갖으시길 권면합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이 때론 감사와 우리를 흥분케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으시고, 함께 기쁨과 염려, 서로의 짐을 나누는 시간을 갖으십시오.